

"악의 심리학"에 대해서

- 자신을 속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스캇 펙, 거짓의 사람들) -

원서연 (인턴기자)

'악'이란 무엇일까? '악'이라는 개념을 접할 때, 흔히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랫동안 종교적 모델과 과학적 모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캇 펙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악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면서, 악이 더 이상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하나의 정신 질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희생양을 낳기 때문이고, 악한 사람들은 치료 혹은 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현대의 심리학으로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캇 펙은 악의 무시무시한 실체 그 대로를 인식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악을 치유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더 연구하여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악의 존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릴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악의 심리학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종교와 과학의 통합인 '악의 심리학'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예시는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이자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정신 이상 감정 결과이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표현했다.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드러난 가장 혼돈스러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한 정신과 의사가 그를 진단하더니 완전히 이상 무라고 공포했다는 사실이었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때 우리가 뜻하는 바는 정의감, 인간의 도리, 신중한 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정신이 온전하다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불편함 없이 미사일을 조준하고 단추를 눌러서 자기들이 준비한 위대한 파괴의 축제를 개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신이 온전하다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악랄한 살인자나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악하다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악한 사람들은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심지어는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악한 사람들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이다. 저자는 악이 악성 나르시시즘, 즉 지나친 교만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악한 사람들은 특유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자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한 표본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오만한 자아상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자연히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어떠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 갈등을 일관되게 세상 탓으로 돌린다. 자신들의 악함을 거부해야만 되는 까닭에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본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투사^{projection}할 희생양을 찾는데,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 지배 아래 있는 약한 자를 찾는다. 그들은 자신의 악을 희생양에게 투사함으로써 (책임 전가) 자신들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고, 스스로의 죄책감의 고통을 깨끗이 거부한다. 죄책감은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일깨워 주는 고통스러운 인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위장술의 도사**라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든 외형상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자 갖은 애를 쓴다. 그들은 특히 겉으로 선해 보이려는 욕망이 매우 강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무척 민감하다. 사실 그들의 '선함'이란 모두 가식과 위선의 수준에서의 선함일 뿐이기에,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 또한 악에 대하여 파괴라는 작전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 방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사랑’만이 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악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모두 사랑의 방법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악의 치유는 모두 개인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는 치유자의 자발적 희생이 요구된다고 한다. 치유자는 자신의 영혼이 악과의 전투장이 되도록 허락해야 하고, 희생적으로 악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승리자로 바뀌게 되는 신비스러운 비법이라고 표현한다. 저자는 이렇게 책을 마무리한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이 자기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자기가 부서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부서진 것도, 죽임을 당한 것도, 결코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상의 세력 균형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나를 희생자로 이용하려는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에게서 악을 목격할 수도 있다. 악은 필연적으로 거짓을 동반하며 파괴적이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선이 악을 정복하고 이김을 확신하며, 사랑으로 기꺼이 악에 직면해야 한다. 때로는 그 악이 우리를 덮어 버리고 부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선한 사람들의 부쉬짐으로 세상은 조금씩 선하게 바뀌어 갈 것이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되어 배반자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되면, 법률은 효력을 잃고 죽음마저도 방향을 반대로 돌릴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매일 악에 직면하며 선을 행하자! 선한 사람들의 패배는 결코 패배가 아님을 기억하자!

참고자료:

스캇 펙, 거짓의 사람들

Thomas Merton, Raids on the Unspeakable (New Directions Publishing Corp., 1964, paperback edition) pp. 45-46

The Lion, the Witch and Wardrobe (Collier/Marmilan, 1970), p. 160.

